“선명상 강좌·체험으로 마음 치유를”

창원 안국사, 선명상 ‘사유의 방’ 개원

9월 13일, 명상 수행 공간
총 20회 걸쳐 선명상 강좌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명상실 ‘사유의 방’ 내부 모습.



창원 안국사가 ‘사유의 방’ 개원식을 기념해 테이프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 안국사(주지 영산 스님)가 9월 13일 불교대학 강당과 선명상실 ‘사유의 방’ 개원식을 봉행했다.

개원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석산 스님,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무진선원 담화림 스님, 김종양 국회의원, 안재문 유마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모신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에 착안해 조성됐다. 선명상 강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수행·문화공간이다.

주지 영산 스님은 “창원에 온 지 6개월 만에 오늘의 불사를 봉행하게 됐다”며 “3년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반가사유상의 감동이 오늘 선명상실로 이어졌다. 신도들과 후원자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스님은 “선명상실이 현대인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주는 공간이자, 스스로 구원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신임 주지 스님이 포교를 원력으로 세우고 불자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단순한 도량의 확장이 아니라 창원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안국사가 거점 도량으로 발전해 부처님의 본뜻을 잘 살리고 종단과 지역 사회의 소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오늘의 주인은 영산 스님과 신도들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사유의 방’에 모셔진 미륵반가사유상”이라며 “태자 사유상이 자기 고민을 상징한다면, 미륵 사유상은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도량에서 신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대중을 향한 자비심으로 회향해야 한다. 그것이 선명상실의 참된 의미”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원 석산 스님은 “창원에는 이미 정법사 광우 스님이 도심 포교를 이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산 스님이 함께 원력을 세우며 창원 불교가 한국불교의 심장으로 도약하리라 믿는다”며 “저 역시 힘이 닿는 대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양 국회의원은 “‘사유의 방’에 가장 큰 손님이 돼야 할 사람은 정치인”이라며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저부터 이 공간에 와서 그런 마음을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특강에서 “선수행은 단순히 안정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감각을 이해하고 의식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훈련”이라며 꾸준한 수행을 역설했다.

안국사는 9월 13일부터 ‘사유의 방’에서 매주 토요일 총 20회에 걸쳐 선명상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 천성산, 원효 사상 발현처 재조명

양산문화원, 9월 18일 학술대회
‘원효, 화쟁의 길을 열다’ 주제로



양산 천성산이 원효 스님이 자신의 사상을 전개·발현한 역사적 현장으로 재조명됐다.

양산문화원은 9월 18일 양산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원효, 화쟁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천성산을 원효 스님의 전법과 설화가 살아 있는 문화유산임을 조명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홍무흠 원효불교문화연구재단 상임이사는 ‘천성산, 원효 화쟁의 길을 열다’ 주제 발표에서 “천성산은 원효의 전법 활동이 펼쳐진 역사적 현장이자 화쟁 사상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효 사상의 핵심인 일심(一心)·화쟁(和諍)·무애(無碍)를 설명하며 “해골물 깨달음을 통해 드러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음을 일깨운다. 원효 사상을 오늘날 사회적 갈등 해결의 지혜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양산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원효의 전법 활동과 천성산 화엄벌’ 발표에서 원효가 천성산 화엄벌에서 1000명의 제자에게 〈화엄경〉을 강의했다는 전승을 소개하며 “천성산은 지붕 없는 원효의 박물관”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천성산에는 원효의 발자취와 설화,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산 자체가 곧 살아 있는 기록물”이라며 “자연경관을 넘어 원효의 화쟁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학문적·문화적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윤 인하대 교수는 ‘원효 오도처 – 그 문헌적 증거와 역사적 상상력’에서 원효의 깨달음 장소를 경기도 화성 당성(唐城)으로 새롭게 지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문헌 기록과 신라·당 교류의 역사적 배경,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화성 당성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동용궁사, 기장군에 자비나눔

장학금 1천만원 · 백미 5천㎏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덕림 스님)가 9월 17일 기장군청(군수 정종복)에서 한가위를 맞아 장학금과 백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장학금 1000만원과 백미 10kg 500포대다.

이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고등학생 및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된다. 덕림 스님은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사찰음식 전문가 과정 첫걸음

초 · 중 · 고급 1년 커리큘럼
1기 과정에 총 24명 등록



범어사 사찰음식연구소(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가 사찰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 과정을 신설하고 첫걸음을 내딛었다.

범어사 사찰음식연구소는 9월 11일 선문화관 2층 연구소에서 개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사진〉 오리엔테이션에는 소장 정오 스님과 부소장 서연 스님, 장도석 자문위원, 심정란·김경숙 강사 및 수강생이 함께 자리했다.

정오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의 일환”이라며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 그것이 곧 큰 공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년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디서든 자신 있게 사찰음식을 전할 수 있는 1기생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연구소는 범어사 내림음식을 비롯한 전통 사찰음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첫 수업은 심정란 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감자 함지쌈, 시금치 은행 잣죽, 감태연근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8명의 사찰음식 전문 강사진이 참여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죽순채, 방아장떡, 느티떡 등 범어사 전통 내림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사찰음식을 실습한다.

이번 전문자격증반은 초급 3개월·중급 3개월·고급 6개월로 운영되는 1년 과정이다. 현재 연구소는 민간자격증 인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동국대 사찰음식연구소와 연계해 2학년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수료 후에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달 한 차례 연구과정을 마련해 졸업생들이 실제 배운 내용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1기 과정은 오전반 12명, 오후반 12명 등 총 24명이 선착순으로 등록해 마감됐다. 연구소는 초급 과정을 마친 뒤 2기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경찰청, 성문 스님 등 5명에 감사장


성문 스님 / 자륜 스님 / 이도경 지사장 / 이상훈 고문 / 정분남 회장

10월 21일 경찰청서 수여식
부산경찰청 · 사상경찰청 감사장
이도경 본사 부산지사장 수상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이 경찰관의 신행활동을 돕고 지역 봉사에 앞장서 온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

부산경찰서는 △성문 스님(선광사 주지, 사상경찰서 경승실장) △자륜 스님(낙은사 주지, 경승 사무국장) △이상훈 부산경찰불자회 고문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이도경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등 5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장 감사장은 성문 스님과 이도경 지사장이, 부산사상경찰서장 감사장은 자륜 스님, 이상훈 고문, 정분남 회장이 각각 수상한다.

강용창 부산경찰불자회장은 “평소 경찰 활동을 널리 알리고 불교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찰과 불교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사회 안정과 공동체 화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여식은 오는 10월 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제8회 연수교육 성료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스님)은 9월 7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위치한 총본산 동명사에서 제8회 종단 연수교육을 성료하였다.

이날 종정 법운 스님은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화두에 임해야 한다”며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면 세상에서 부질없이 머물다 가는 것이 되니 용맹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법문을 내렸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